

敎員敎育의 綜合的 모델, 韓國敎員大學校

權 彝 赫

(韓國敎員大 總長)

韓國敎員大學校는 設立 당초부터 世人의 注目을 끌었고 敎育界 일각에서는 贊反 兩論이 이등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교원 대학이 이제 開校 3周年을 맞아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를 志向하여 어떻게 發展해 가고 있는 것일까. 自體的인 評價를 곁들여 대학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1. 設立背景

우리는 高度産業社會를 이룩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文化를 暢達하며 민족 분단의 아픔을 씻고 平和的으로 統一을 이룩함으로써 韓民族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해야 할 무거운 課業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업을 이룩해 가는 原動力은 敎育에 있고 그 敎育의 成敗는 거의 敎育의 주관자인 敎員의 質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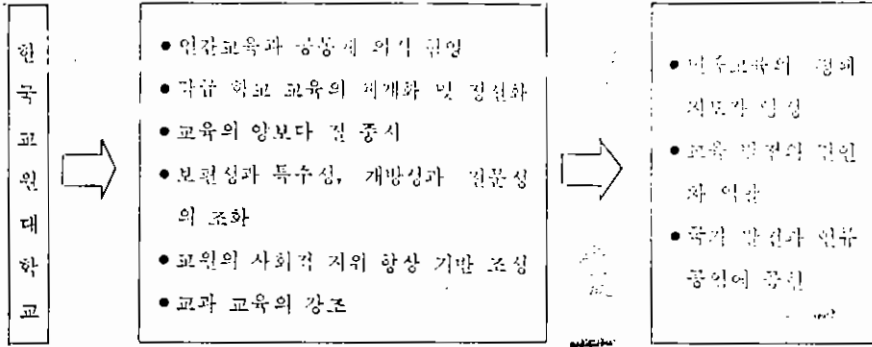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세계 先進國들은 그들의 교원의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優秀敎員 확보를 위한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敎員敎育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師範系 출신 교원들 가운데도 敎職을 輕視하여 좀더 나은 조건만 있으면 資格證을 박탈당

하면서까지 敎職을 등지고 있고 심지어는 극소수이기는 하나 그릇된 理念을 순수한 학생들에게 注入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事例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敎員敎育을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교원 敎育의 문제점을 배제하고 좀더 使命感에 불타는 교원을 輩出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여기에서 敎員敎育의 새로운 構想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구상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대학의 경우 綜合大學內의 師範大學은 獨自的인 특수성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단과 대학일지라도 이미 나름대로의 傳統과 制度가 굳어져 있어서 교원 敎育의 새로운 體制 構築은 많은 難關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未來社會를 내다본 敎育革新을 위한 교원 敎育의 새로운 設計로서 敎員綜合大學의 新設案이 연구·추진된 것이며, 그 결실로서 韓國敎員大學校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현행의 敎員敎育體制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代替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원 敎育의 새롭고도 示範的인 모델을 창출·제시하며 교원 敎育의 質的 高度化를 도모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교육 이념 요약도



2. 教育理念 및 目標

한국교원대학교는 미래에 전개될 世界史를 내다보며 한국의 傳統과 文化를 개성 있게 창조해갈 民族教育의 精銳教育者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교육 과업 수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코자 한다. 이를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理念的 基底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 人間教育과 共同體 意識 함양 그리고 투철한 使命感과 教職觀의 확립을 중시한다.
- 幼稚園·初·中等學校 教育의 體系化와 綜合化의 실질적인 도모로 教育의 精選化와 效率性을 지향한다.
- 모든 教育體制와 운영 면에서 量보다 質을 중시하고 기능적 능력보다 價值的 信念의 확립을 우선한다.
- 普遍性과 特殊性에 유념하여 汎人類的 民主市民教育을 심화하면서 韓國民의 자질을 內面化하는 데 주력한다.
- 각급 학교 교원의 同等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 全教育 영역에서 韓國 教育의 土着化를 지향한다. 즉 외국의 발전된 교육을 충분히 開放的으로 수용하되 그것을 한국의 문화와 현실에 바탕을 두어 再創造하는 역할의 수행을 뜻한다.
- 教員教育機關이라는 專門的 형태의 대학 특성을 살리되 일반 대학의 교육에서와 같은 개방적 형태의 교육 운영을 충분히 수용하고자 한다.

- 교육 내용은 理論과 實際間에 긴밀한 연계를 짓되 구체적으로 教科教育을 강조한다.
- 모든 教育活動에서 관련 대학들과 긴밀한 協助體制를 다지며 共同的 노력에 의한 공동적 產出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념적 바탕 위에 教員大學校는 ① 부철한 사명감과 教育愛를 갖춘 교육 실천가, ② 폭 넓은 教養과 人格을 갖춘 교육 지도자, ③ 우수한 學力과 教育技術을 갖춘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고루 구비한 精銳教員을 배출하여 교육의 質的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教育改革 작업을 항구적, 실질적으로 보장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3. 機能 및 特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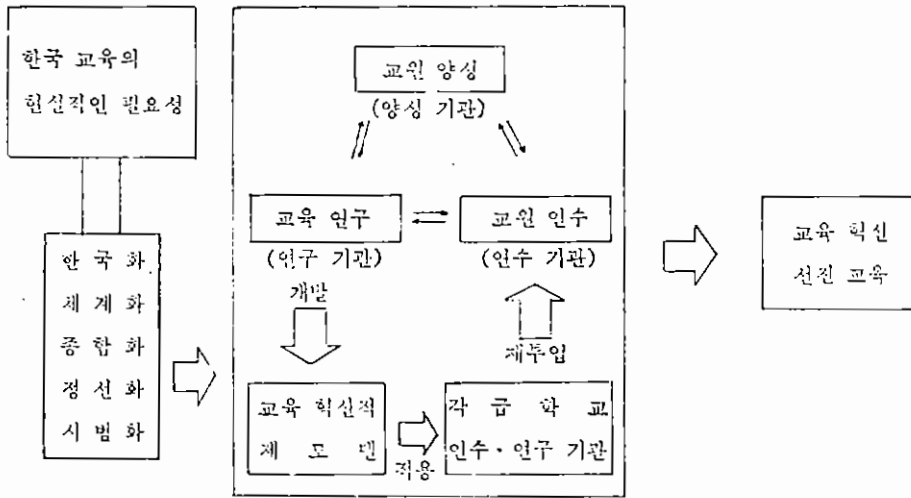
1) 기 능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원의 現職教育(研修), 職前教育(養成) 및 교육에 관한 실천적 研究의 3大機能을 수행한다(표 2 참조).

교원 양성은 제1대학에서 幼稚園·初等教員을, 제2대학에서 中等 人文社會系列 교원을, 제3대학에서 中等 自然系列 및 藝術·體育系列 교원을 양성하여 전체적으로는 각급 학교 교원을 統合養成하는 체제이다.

教員研修는 教員寄宿宿(1986. 10 준공)를 이용, 合宿生活을 위주로 한 전국 규모적인 精銳教員 연수에 치중한다. 특히 지도적 위치에서 일할 中堅教員의 질적 향상을 위한 再教育에 역점을 두어 교육 현장에 발전적인 새로운 教育情報·

〈표 2〉 기능 구조도



技術을 투입함으로써 現職敎育의 中樞的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 2월 일차적으로 전국 유치원·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를 341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바 있는데 전국 규모 중견 교원 연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敎育研究는 교원 敎育, 현장 敎育, 기초 敎育 등에 관한 先進的 실제적인 연구를 敎育 현장의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그 結果를 교원 敎育 기관, 敎育 현장에 제공한다.

이러한 3大機能의 수행을 위해 교원대학교에는 敎員研修院과 敎育研究院을 별도로 두어 대학들과 동등 위치에서 부여된 역할을 할 수 있게 制度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大學院은 현장 敎員 및 敎育專門職, 敎育行政職의 깊이 있는 再敎育의 기회를 부여하여 敎育 현장의 지도자, 師範系列 敎授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원은 현장 敎育 개혁의 主役을 담당할 敎育 전문가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選拔過程이 二元化되어 있다. 현직 교원을 敎育監 추천에 의해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와 학부 출신자 중 직접 경쟁에 의해 선발하는 과정이 있다. 현재는 전자만 운용하여 50명의 초·중등 현직 교원이 파견 형식으로 碩士課程을 이수하고 있다.

대학원은 교원의 양성보다 교원의 계속 敎育

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規模面에서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2) 특 색

첫째, 敎育 과정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敎직에 대한 확고한 使命感과 나날이 발전하는 敎育 현장에서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知的 秀越性과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感化를 줄 수 있는 運靑한 人間性을 갖춘 敎育者(스승) 양성에 주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敎養課程에 〈敎育과 세계〉, 〈인간과 사상〉 등 集團指導(team teaching)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 인원의 소규모 화와 개별 지도 학습 체계(tutoring system)를 최대한 적용한다. 敎科外 학생 활동의 경우도 대학 전체 敎育 과정의 일환으로 체계화하여 자율성을 신장하고 폭 넓은 인간적 성숙, 지도자적 자질, 다양한 技藝 등을 수준 높게 닦도록 한다. 이러한 敎과외 敎育 활동의 체계화는 勉學의 열기와 낭만으로 가득해야 할 대학 캠퍼스의 건실한 문화가 저항과 폭력에 의해 뒤틀리고 있는 주변의 현실 상황에서 '참스승'의 개성 있는 創造와 協同의 노력에 의한 생산성 있는 大學文化를 示範的으로 형성해 가는 데 기여하게 된다.

둘째, 2년간의 합숙 생활(생활관 생활)을 義務化하여 생활 훈련을 받는다.

스승으로서 갖추어야 할 원숙한 인격과 투철한 자세를 갖추게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히 이

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價値觀의 확립과 태도의 형성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생활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新入生은 전원 기숙사(生活館)에 入宿하게 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國費에 의한 생활관 생활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2년간의 생활관 생활을 통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 敎養을 익히고 指導의 자질을 체득하며 禮節, 질서, 준법, 도덕, 명예 등 德目的 生活化에 익숙해진다. 흔히 이 생활관 생활이 합숙 생활에서 오는 단조로움과 劃一的 운영 형태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批判的 견해도 있으나, 자율성을 가능한 확대하고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여 감에 따라 그러한 비판은 기우일 뿐 생활 교육의 효과는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계, 학사 관리가 엄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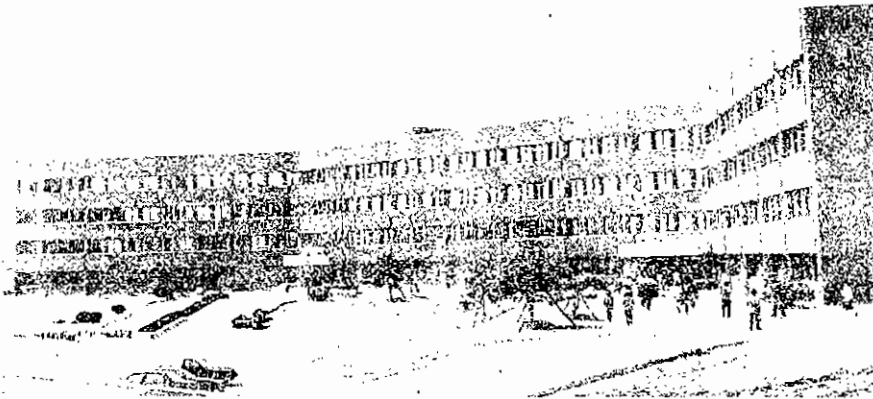
총 이수 학점 150학점은 타대학에 비해 10학점이 높은 학점이다. 매 학기 평균 평점 C_0 (74~76점) 미달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 경고 2회 이상이거나 3학기 이상 평균 평점이 C_0 미만이면 학사 제적된다. 이미 4학기를 마친 현재 학사 제적자가 10명에 이르고 있다.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품행 면에 있어서도 罰點制를 두어 소정의 벌점을 받으면 懲戒를 받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敎職者로서의 자질 부족이란 판단에 따라 退校를 하도록 하고 있다. 數보다 質을 중시하여 精銳敎員 養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사 관리의 엄격성은 부득이한 일이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학생들의 勉學氣風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품행 면에서도 비교적 模範性을 보이고 있다.

세계, 학생 選拔과 졸업 후의 진로에 특색이 있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그 선발 과정에서부터 보장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成績 優秀者라고 하여 반드시 훌륭한 교원이 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敎職이 專門職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에 적합한 適性和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대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敎育監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配定된 학생만큼 추천하여 일괄 지원을 하고 학교는 필요한 檢査와 수학할 수 있는 기본 능력만 확인하여 선발한다. 그러므로 전체 입학 정원은 534명에 불과하나 정원을 市·道敎育委員會別, 전공別, 남녀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14개 시·도, 19개 학과, 남녀별로 合格線이 달라 소위 커트라인이 532개(14개 시도×19개 학과×2(남·여))나 된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추천 市·道敎委에 배치 발령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향간에서 교원 적체 현상이 빚어지자 교원대학을 직체를 가중시키는 큰 요인으로 간주하여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전공별로 배정되는 인원이 평균 1~2명에 불과하므로 우려할 만한 영



◀ 교원대학교는 교원의 현직 교육, 직전 교육 및 교육에 관한 실천적 연구의 3대 기능을 수행한다.

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教授는 他大學과 같이 대학의 學科에 소속되지 않고 教授部를 두어 專攻系列에 소속된다(pool system).

教授部에 교육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예술 계열, 체육 계열을 두어 전 교수가 이 중 한 계열에 소속됨으로써 교수마다 각 학과가 요구하는 강의를 융통성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내의 研究機關과 現職教育機關 등을 支援하기 위하여 일정 교수는 해당기관의 직무를 거의 전담할 수 있도록 강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각급 학교 교원을 통합, 양성하는 체제에서 교수를 전공에 따라 원활하게 강의에 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종래의 연구 기관이나 현직 교육 기관이 겪었던 高等專門人力 확보의 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여섯째, 附屬機關들이 각급 학교 교육 내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운영되고 있다.

교육 연구원은 물론이고 도서관, 전자 계산소, 보건 진료소, 세마을 연구소 등도 연구 기능을 강화, 도서관은 각급 학교 독서 지도·도서관 활용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자 계산소도 각급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電算教育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든 기관이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적 기능과 시범성을 높여 감으로써 교원대학교 자체가 각급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중심적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展望과 課題

● 敎員大學校는 교원 교육 기관의 새로운 모델임에 틀림이 없다. 교원 교육의 綜合的 體系化를 통하여 敎員養成·再教育 등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교원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改革의 先導的 役割이 기대된다.

● 韓國 教育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敎職者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교원의 배출과 현직에서 파견 형식으로 大學院에

입학하여 修學하고 되돌아갈 現職敎員을 통하여 교육현장에 刷新氣風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 각급 학교 교원의 統合養成을 통하여 학교급별 교원의 等差意識이 완전 해소되고 새로운 教育者像을 부각시켜 교원의 社會的 지위가 전체적으로 向上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敎員大學校 학생 상호간에는 전공에 따른 등차감이 해소되어 장차 교원 社會의 和合的 분위기 조성과 협동적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갈 것이 명백하게 豫見되고 있다.

● 대학에서 연구 개발된 방법과 기술을 敎員 教育課程에 투입하여 教育革新 보급의 길을 트고 현장 교육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敎前教育·現場教育·現職敎育과 실제적인 補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架橋的 역할이 기대된다.

●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敎育改革의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韓國 敎育에 맞게 흡수·수용함으로써 교육의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며, 특히 基礎敎育, 敎科敎育의 이론과 실재를 위해 연구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각급 학교의 敎育力 신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 밖에도 교원대학에 거는 기대와 과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교원 교육의 종합 기능을 부여한 대학교는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며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와 같은 同一型은 전무하다. 새로운 試圖, 새로운 構想은 그래서 日本, 美國 등 관계 대학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무거운 課題와 期待를 안고 있는 교원대학교가 設立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우수 교수진의 확보와 연구력의 신장, 시설의 조기 완비와 관계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교육계의 계속된 성원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前提는 敎員大學校에 몸담고 있는 教授陣容의 학교 발전을 위한 使命感에 넘치는 헌신과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불과 2년 동안 한국교원대학교의 성장을 지켜본 外部의 視線은 매우 肯定的이다. 內部的으로도 矜持와 意慾에 차 있다. 前進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는 한 敎員大는 '참스승', '참교육'의 產室으로서 敎育史의 한 章을 빛내 가리라 확신한다. *